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 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3월 7일 (제1087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느 권사님이 작은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다.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드니 삶을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교회라도 하나 짓고 가자겠다고 결정했습니다.”라고 했다. 참 멋진 분이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은 실상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遺皮 人死遺名)’,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명제는 결국 ‘나는 어떤 사람으로 후대에게 기억될 것인가?’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기도원에 있는 내 가묘에는 ‘예수의 종 목사 이초석’이라 써놨다. 군더더기가 없다. 나는 이 이상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과거 36년이 그랬듯이 앞으로의 여생도 오직 뜻대만을 향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나를 후대가 ‘그분은 정말 예수의 종이었어.’, ‘이초석 목사님은 예수님의 행복한 노예였지.’라고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다.

백세시대인 지금, 우리가 달려갈 길의 끝이 정상이라면 나는 7부 능선을 넘어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정상까지 그리 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드는 인생 작품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려고 심혈을 기울인다. 해가 지기 전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답듯 나도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하련다. 이제 내 삶을 돌아보자. 숨 가쁘게 달려온 내 삶은 과연 후세가 인정할만한 삶이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나, 내 발자취를 돌아보자.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나는 물론 내 성도들이, 내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다 갔으면 한다. 우리, 영·혼·육을 잘 정리하고 관리해서 하늘에서는 상과 면류관이고, 후대에게는 길이 기억될 좋은 작품을 남기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히9:27).

소문이 좋아야 성공한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초석 목사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라는 소문이 입소문에서 시작하여 영상매체를 타고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까닭이다. 예수 이름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목발,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 걸으며, 암에서 고침 받더라, 하는 소문,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니 정말 소문이 말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했기에 급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2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소문이 좋아야 성공한다.’ 우리 교단이 오늘에 이르게 된 비결입니다.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아들을 장가보내고 딸을 시집보내든 마찬가지로, 구멍가게부터 큰 사업을 해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됩니다. 소문이 나쁘면 망하는 거고, 소문이 좋으면 잘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업인 세미나에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0-1=0, 10+1=∞.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10-1=9가 맞지만 세상법칙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열 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 실수가 나오면 고객은 그 한 가지로 인해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갔더니 소문대로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만점이고 분위기도 최상이더라 하면 한마디로 대박 나는 겁니다. 물론 음식만 맛있어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찾아와 기다리지만, 거기에 주인장의 이미지, 식당환경의 이미지까지 덧붙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라 이겁니다.

광고는 이미지를 파는 겁니다. 약속을 파는 겁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다 뻥이더라 하면 그 약속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 광고 사진에 있는 음식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시켜보았더니 그 반에 반도 못하게 나오는



목회 8년만에 단일교회 집회사상 최대인파가 몰려들었던 메인스타디움집회, 광고의 결과였다

의 소문, 그 능력 있는 제자들의 소문이 퍼져나간 과정이나 동일하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마4:23~25).

“오늘도 단에 오르기 전, 멀리 울산에서 찾아온 자매가 있어 방송실에서 예수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울산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이초석 목사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

해도 잠시 방심하여 어느 날 그 음식에서 해로운 것이 나오기라도 하면, 그리고 그 소문이 패스컴을 타기라도 하면 그날로 장사 종치는 겁니다. 왜 대기업들이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면 먼저 앞서서 대규모 리콜을 단행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는 씻을 수 없는, 주위 담을 수 없는 치명타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인간힘을 쓰는 이유는 작은 생채기 하나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열 가지를 잘하는 중에 한 가지를 또 잘하면 10+1=11이 아니라 무한대의 역사로, 가히 산술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식당에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광고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진짜 광고대로 나오더라 하는 소문만 났다 하면 대박을 치는 거죠. 예수중심교회 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진다는데, 병도 고친다더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상처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데, 하는 소문이 더, 많이 나야 합니다. 광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그날에 많이 맞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아서 예수의 소문을 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1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예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 대면예배 실시)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16:7~13)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한다

“씨앗은 알곡이요, 사람은 중심이다. 씨앗과 사람은 골라 쓰는 것이다.” 이것은 제 목회철학인 동시에 저의 목회 성공비결입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전에 꼭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볍씨를 물에 담가 두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중 물에 동동 뜨는 씨앗은 버리고, 묵직하고 좋은 씨앗을 골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업가는요?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목회도, 정치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 골라 쓰면 힘이 되지만 잘못 택하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회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밋 다대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막3:13~19).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까요? 대부분이 사람을 볼 때 그의 학력이나 이력, 집안이나 배경, 미모를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을 볼 때는 그 속을 봐야 합니다. 자고로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뚝배기만 근사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든 음식이 맛있어야지요. 사울을 왕위에서 폐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울을 이을 2대 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엘리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만큼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린 막내 다윗을 택하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며 다윗의 중심을 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외면적으로는 내세울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생이 있는가 하면, 과부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들의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보되 어떤 것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먼저는 동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코드

가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과 사업을 할

하고,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빠져들고 결국 그것이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마라토너에게 가장 힘든 구간은 오르막 코스라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 한 알이든 이질감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단체가 시끄럽고 아프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해외선교팀은 최고의 동역자요, 파트너입니다. 마음이 맞는 것은 물론이고, 착하면 삼천리고, 투박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린 줄 알 정도로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믿음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갈라섭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인내하자’ 하며 갔더라면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질감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동질성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

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동업이나 결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쉬웠더라면 하나님이 “안 믿는 자와 결혼해서 그를 구원하라. 불신자와 동업해서 그를 구원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것이 절대 쉽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사귄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고후6:14~15).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충성된 자를 골라야 합니다. 충성(忠誠)이

무엇입니까? 가운데 중(中)에 마음 심(心)이 합해진 것이 충(忠)이니 곧 진심과 정성이요, 말씀 언(言)에 이를 성(成)이 만나 성(誠)이니 역시 곧 진심과 정성을 뜻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진심을 다해 성실히 일하는 자,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도 주저 없이 내어 놓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행20:24). 또한 바울도 보비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자를 택하여 복음의 동역자로 삼았던 것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롬16:1~4). 다윗에게도 충성된 37명의 용사가 있었지 않습니까(삼하23:23~39)? 저도 저를 위해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니 교회가 문제없이 잘 가는 것입니다. 본시 꿈은 뿌리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요, 성장은 잔뿌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진들이 중요한데,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라면 아름답

나무가 되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차별은 옳지 않으나 구별은 해야 발전한다

셋째는 부지런한 자를 써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당할 결말에 대해 많이 써놓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갈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게으른 자와 동업을 하면, 게으른 자와 결혼을 하면, 게으른 자와 목회 하면 그로 인해 이빨을 식초에 담근 것처럼 시큰거리다 이빨이 다 빠지는 형국이 될 것이고, 연기가 자욱한 것 같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되는 꼬라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로 인하여 다 잡은 것도 놓치게 될 것이고(잠12:27), 매일 그 밥에 그 반찬 꼴이 나고, 매일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잠26:14~15). 그래서 하나님도 부지런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을 택하사 믿음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절대 일을 시킬 때 먹고 노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켜보면 항상 핑계나 되고, 안 되는 방법만 찾기 때문입니다(잠26:13).

여러분,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잠27:19)고 했습니다. 서로를 비취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이력에 속지 말고 오래 사람을 관찰하면 물에 얼굴이 비취듯 마음이 보입니다. 조금하지 말고 그 마음을 살펴 사람을 택하세요. 사람을 얻기는 쉽지 않아 전도자는 전도서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전7:28)고 했습니다. 그러나 얻기 어렵다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사람을 보내주셔서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합니다. 외적인 것에 유혹되지 말고 속을 볼 줄 아는 혜안이 열리기를, 그래서 만사에 행통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매사 ‘할 수 있다’ 하자

어느 성도님이 아침에 전화를 하셨다. “꼭 사님, 코로나 백신 맞으라는데 맞아야 되 나요? 잘못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맞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나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좋은 백신 개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맞겠다 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진행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소망이 생겼을 때 생각 속에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 끝내 제일 좋은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나 매체들을 통하여 길이 열리는 것을 늘 체험한다. 목적을 갖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고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 가만히 있거나 움츠러드는 사람을 돕지 않으신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두신다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시도 해라. 매달리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를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어려운 것을 구했다 하시면서 허락하셨다. 그야말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니 사랑과 인내를 잡하고 있다고 칭찬한(살전1:3)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로, 예수님의 인내의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노라’ 하셨다. 칭찬 들을만한 사랑과 인내를 갖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경지, 최고의 인내의 경지까지 가기를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있는 종의 것을 빼앗아 열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논리를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도우신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게 해 주신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게 두시고, ‘살겠다’ 하면 살길을 열어 주신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겸비해야 한다. 매사에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음을 믿고 두드려야 길은 열린다. 아람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목사님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이시대 목사

선한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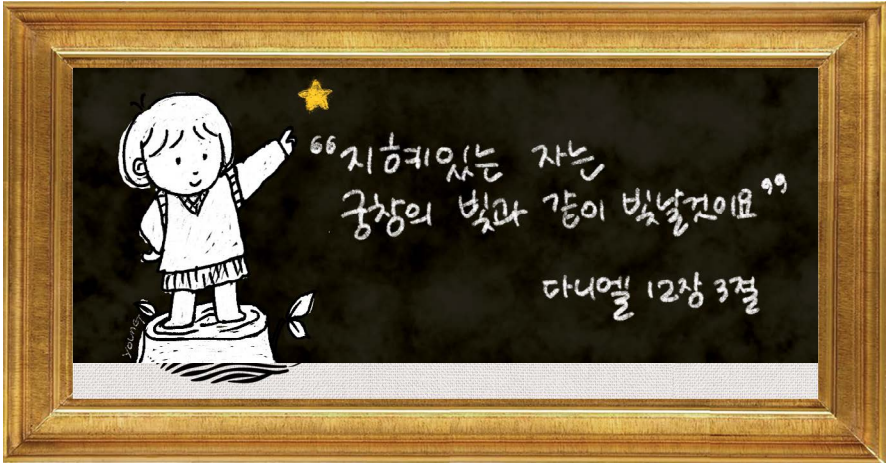
선한 영향력, 누군가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홍대 인근의 모 파스타 가게는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SNS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 사장님이 실천한 선한 영향력은 자영업자 자발적 공동체 운동인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의 시초가 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3~16).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밝히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다. 그러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막12:30~31)는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요, 둘째는 고넬료와 다비다처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서 나누고 보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선한 영향력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비롯된다. 예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김성일



:: 진리의 학당 ::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요한복음 15:1~2)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아들로 참 포도나무로 삼으심이니 인류는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는 가지가 되어 참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생은 못된 나무로 변질되었으나 농부의 진실된 보살핌의 보상으로써 회개의 은총을 입고 보혈을 환영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포도나무를 깨끗하고 풍성하게 하여 좋은 열매를 가꾼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으니, 가지가 나무에 달려 있기를 소망 할지라도 주인인 농부를 실망시킨 가지는 농부의 임의로 제거해버린다(눅 13:7~9).

농부의 땀과 노력의 결과는 그 가지에 열리는 열매가 보상이 된다. 그러나 일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회수할 길이 없어질 때 농부는 분노하게 되고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는 공흠대신 심판을 가하는 것이다. 한번 제거당한 가지는 다시 그 나무에 붙을 수 없다. 마귀는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신 포도나무

가지이다. 노아 때의 홍수도,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농부를 실망시킨 결과였고, 가룟 유다도 농부를 실망시킨 열매 없는 가지였다. 농부의 한 해 기업의 성공 여부는 가지에 달려 있고, 농부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쏘는 농부의 애착과 희생과 노력은 생사를 건 투쟁인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 한 인간을 당장 제해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셨으니, 오직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을 열매로 거두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를 제일의 은혜로 생각하고 회개에 참여함으로써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된다. 회개란 비록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인한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는 육체를 떠나면 영원히 효력을 잃게 된다.

농부는 참포도나무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하여 나쁜 가지를 속히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를 지원한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성공을 기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열매 없는 가지로 인정하시고 묵인하지 않으신다. 포도나무 가지에 기생하

는 더러운 영들을 제거해버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농부에게 오는 손실이고, 또 포도나무에 큰 해를 끼친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저해되는 무가치한 가지가 있다. 어떤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쫓겨났고, 어리석은 부자는 제 몸 하나만을 우상처럼 위하다가 영혼이 망했고, 어떤 쪽정이 신자는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말았다. 사단의 생각을 뿌리치지 못한 한 제자는 스승을 팔아넘기고 멸망했다. 세상에 잔뜩 취해 있던 처녀들은 주님 만날 기쁨을 쇠진시켰고, 어떤 종은 주인이 없는 사이 술 마시고 방종하다가 쫓겨나 이를 갈고 있다. 사울은 왕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파면하셨고 그는 일생 죽을 짓만 하다가 망하고 말았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관계 속에 있으니 그 가지들도 나무와 함께 농부를 위한 충실한 가지만 된다면 그 가지는 영원한 관계에 속하게 된다. 주님은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다

시 살기도 하셨다(요10:17~18).

성도의 최고의 열매는 성령으로 나타내신다(갈5:22). 좋은 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다. 농부가 원하는 가지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내는 가지다. 성령께서는 농부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가지가 되게 하시려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신령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갈5:16~24).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관계 속에 있으니 성도는 나무와 함께 농부를 위한 충실한 가지가 된다면 그 가지는 영원한 관계에 속한다. 좋은 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 맺으니 성도의 최고의 열매는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니 항상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지속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가지들이니 그의 진액을 풍성히 공급받아 영혼을 결실하는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가지의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고 힘써 열매를 맺어가자. 그날의 보상을 바라보자.

박덕규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타 부서의 여군 선배장교 김 중위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평소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던 터라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저의 직속상관이 협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 중위의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 중위는 그의 부하인 저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도가 지나친 상황을 지켜봤던 동료가 당장이라도 저의 직속상관에게 보고할 기세였습니다. 김 중위가 한 일을 저의 직속상관이 알게 되면 김 중위를 꾸짖거나, 일이 커져 부서 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동료를 막아서며 '이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협조해야 할 일이었고, 제가 하룻밤 고생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해결한 후, 그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미 부대의 모든 사람이 '정 중위는 크리스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없었고, '열 명의 동지보다 한 명의 적을 두지 말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를 잘 받는 김 중위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김 중위는 누군가의 실수로 었

무상 차질이 생겨 난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홀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저는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부대장님께서 대뜸 김 중위에 대해 물으셔서 그가 잘한 일만 강조하며 훌륭한 장교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대장님께서 김 중위를 격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전역할 때가 되어 선후배 장교들이 환송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잊지 말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에 감정이 복받쳤는지 김 중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이 맨 소리로,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저의 앞날을 축복해주었습니다. 요셉이 극심한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와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는 일에 그의 권력을 사용하였다면, 감동스러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입

고도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축복하고 계신 총회장 목사님의 진심이 없었다면, '통 큰 자가 되라'는 그의 외침이 가슴 깊이 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예수님의 관용을 닮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관용은 홀로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관용을 훈련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솔직히 저의 본심은 억울하고 상처받는 일을 원치 않을뿐더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관용 베풀기를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마냥 억울해하거나 속상해서 분을 내기보다는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혀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푸르른 아름드리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4:5).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고전13:5).

정명관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교단소식 ::

인내 속에 감추인 축복



노량진 교육관 시대를 여는 드림스퀘어 전경

대방교육관에서 나온 후 교육관을 위해 기도한지 어언 10년, 하나님은 교통이 용이하고 넓은 노량진 드림스퀘어에 교육관을 허락하셨다. 3년 전 교육관이 지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준공이 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비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하신 것처럼, 9년 전 교육관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육관을 주시고자 예비하셨음을 고백한다. 지난 2월 27일, 이시대 목사님을 모시고 노량진 교육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찬양, 말

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마치기까지 매 순간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교육관을 하나님께 드린 분, 봉사, 물질을 통한 많은 분들의 오랜 수고와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시대 목사님은 '인내 속에 감추인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인내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4). 인내하는 자는 자신이 뿌린 것뿐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놓고 간 것까지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갖춰야할 소양, 덕목은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하나

님께서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사울 왕에게 왕권을 그냥 주시니가 잃어버렸던 것이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연단을 통한 인내를 하게 하신다. 인내를 통해 온전케 되어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가질 수 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120문도가 오래 참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히10:36). 금식과 기도하며 애통했던 교육관이 오래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인내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자." '이 땅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자!' 늘 외치던 구호처럼 이 땅의 모든 청소년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안디옥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이 노량진 교육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기도한다. 아름다운 교육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올림 있는 삶 ::

말씀의 힘

딸아이가 9세이던 여름, 예수중심교회에 처음 출석한 이후 나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출퇴근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고, 직장에서는 팔뚝 빼곡히 말씀을 적어 남몰래 암송하기도 했다. 말씀이 갈급하여 교회신문을 모으며 그 안의 생명의 말씀들을 도화지에 적어 그것을 코팅한 후 연결하여 집안 곳곳에 걸기 시작했다. 화장실, 베란다 유리창... 공간이 부족해지자 천장에도 붙이고 현관문 앞뒤로도 붙였다. 그런데 그것이 딸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이 되었다. 사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방식이란 걸 몰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딸아이의 눈에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은 딸아이의 영혼 깊숙이 흡수되어 탁월한 암기력을 발휘하게 했다. 비속어와 신조어가 난무하는 학교생활 중에도 각뿔한 존대어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고운 말, 바론말을 구사하는 딸은 '요즘 시대 흔치 않은 보물'이라며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고 입에 자주 오르내림을 들을 수 있었다.

맹모삼천(孟母三遷)도 좋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 문설주에 기록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게 할 것이라"(신 6:10~11)는 말씀을 이뤄주신다. 실제로 나와 딸아이의 삶 속에 이 말씀은 이뤄졌다. 다들 힘들어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순탄케 하셨고, 생각지 못한 사업 확장의 길로 인도하셨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입점입확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추성숙 집사

